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트럼프 트레이드 쏠림 현상 지속 등으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11일(월) 미국 증시는 트럼프 당선발 미 증시 랠리 지속되는 가운데 테슬라, 금융주 등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업종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 나타나며 3대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69%, S&P500 +0.10%, 나스닥 +0.06%)

10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10월 30일~31일) 의사록 요약본에 따르면, BOJ 금융정책결정위원회는 당분간 금리를 신중하게 인상하기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특히, 외부적 리스크로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을 언급하며 금리 상승이 자산 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소비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미 금리 상승과 더불어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가 일본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신중한 금리 인하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침.

주말 사이 미 하원에서 공화당 확보 의석 수가 증가하며 레드웨이브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이로 인해 트럼프 2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들에 집중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보다 더 활발해지는 모습.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8만 2천달러 경신. 또한, 테슬라도 이 날 9% 넘게 주가 상승하며 급등세 지속되는 모습. 또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 금융주들도 이 날 강세 시현.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마이크로소프트(-1.07%), 애플(-1.2%), 메타(-1.05%), 아마존(-0.64%), 엔비디아(-1.61%)는 하락한 반면 알파벳(+1.12%), 테슬라(+8.96%)는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기소비재(+1.8%), 금융(+1.4%), 산업재(+0.8%)는 상승한 반면, IT(-0.9%), 부동산(-0.8%), 헬스케어(-0.6%)는 하락.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미국 증시는 레벨 및 속도 부담이 누적됐음에도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중립 이상의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이는 52주 신고가와 신저가 수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11월 11일 기준, 코스피의 신고가 종목수는 19개로 10월 말 17개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는 반면, 신저가 종목수는 105개로 10월말 44개에서 2배 이상 증가. 이와 반대로 나스닥의 신고가 종목수는 217개로 10월말 69개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저가 종목 수는 122개로 10월 말 173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

더 나아가, 국내 증시 소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슈가 11월 4일 민주당 결정으로 도입 폐지가 유력해졌다는 점에도 반등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 국내 3분기 실적시즌 실망감, 특정 업종 내 유상증자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와 거래대금의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실제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10월 30일 4.7조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1일까지 6~7조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8.6조원)을 큰 폭 하회하는 중. 코스피는 11월 4일 7.9조원을 기록한 이후 11조원대까지 올라왔지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트럼프 당선 이후 조선주의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 등 특정 업종 이슈가 만들어낸 측면이 컸던 것으로 판단.

이렇게 미국 증시는 신고가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거래도 부진하고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로는 실적 불안, 유상증자 사태 등 상기 언급한 것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존재.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큰 호재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배적이기 때문. 트럼프가 공약에서 제시했던 대로 보편적 관세(10~20%),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60% 이상)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이는 지난 2018년 무역 분쟁 당시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비슷한 맥락에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급등이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 11일 코스피(11.2조원)와 코스닥(6.9조원)의 합산 거래대금은 17.2조원을 기록한 데 반해,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산 거래대금이 20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화, 연방거래위원장 교체 등 바이든 정권에 비해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

그렇지만 전일 위클리에서 강조했듯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기대감에서 현실성 여부를 따져가는 국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물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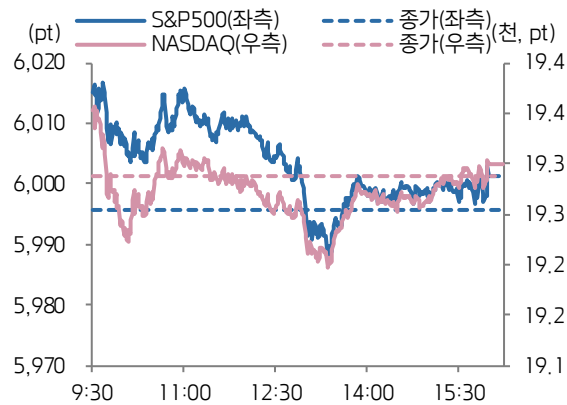
요일 미국 10월 CPI 이벤트, 국내 이익 및 수출 모멘텀 둔화 등 여타 과제들은 계속 풀어나가야 하지만, 테슬라, 비트코인 등 대장 수혜주를 제외한 그외 트럼프 트레이드가 소강 되는 과정에서 대선 이슈가 만들어낸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환기시킬 수 있을 전망.

또 지난 금요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의 부양책 실망감이 국내 화장품, 비철금속 등 중국 관련주들의 동반 약세가 나타나면 국내 지수를 한층 더 끌어내린 만큼, 중국 증시 및 부양책 향방도 중요한 것은 맞음. 다만, 데이터 상으로 이전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은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2018년 연평균 26%대에서 올해 연평균 19%대로 감소).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2기 정책 불안감, 중국 경기 부양 실망감, 이수페타시스발 약재 등 대내외 요인으로 급락한 채로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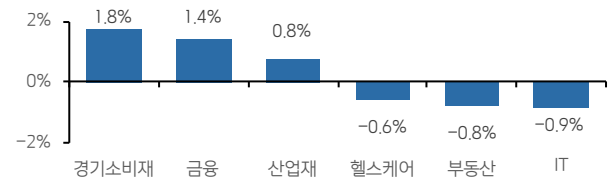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증시에서의 테슬라(+9.1%), 비트코인(+9.8%) 등 트럼프 당선 of 대장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국내 양시장 전일 급락세가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하는 등 3분기에 비해 환율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진행 과정에서 주가가 부진했던 수출주(환율효과 기대, 가격 메리트 등)에 대한 관심을 재차 높여볼 만하다고 판단.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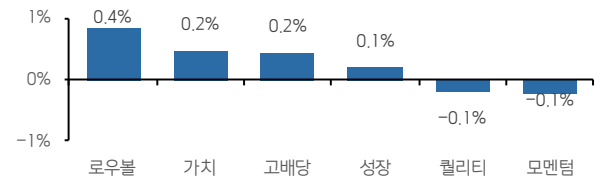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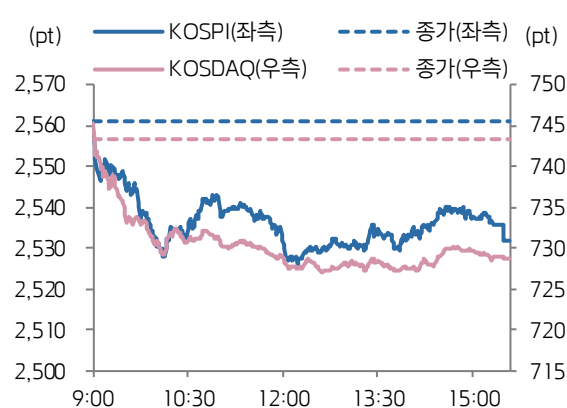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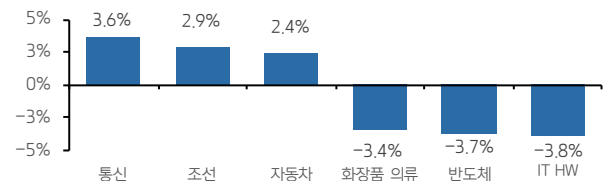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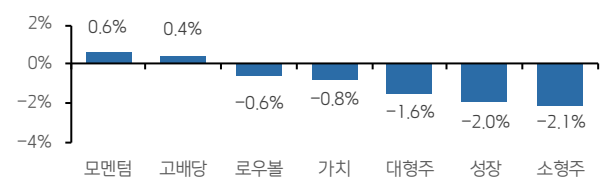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4.23	-1.2%	+17.04%	GM	57.66	+3.74%	+61.83%
마이크로소프트	418.01	-1.07%	+11.77%	일라이릴리	832.44	+0.11%	+43.5%
알파벳	180.35	+1.12%	+29.43%	월마트	84.21	-0.73%	+61.81%
메타	583.17	-1.05%	+65.25%	JP모건	239.29	+0.97%	+44.04%
아마존	206.84	-0.64%	+36.13%	엑손모빌	120.47	-0.53%	+23.59%
테슬라	350.00	+8.96%	+40.86%	세브론	156.50	-0.27%	+8.34%
엔비디아	145.26	-1.61%	+193.39%	제너럴일렉트릭	84.21	-0.7%	+61.8%
브로드컴	178.91	-2.58%	+62%	캐터필러	396.54	+0.81%	+36.27%
AMD	147.35	-0.41%	-0.04%	보잉	148.96	-1.79%	-42.85%
마이크론	108.65	-2.9%	+27.69%	넥스트에라	75.91	-1.4%	+27.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31.66	-1.15%	-4.66%	USD/KRW	1,401.00	+0.29%	+8.77%
코스피200	334.64	-1.49%	-6.52%	달러 지수	105.50	+0.48%	+4.11%
코스닥	728.84	-1.96%	-15.89%	EUR/USD	1.07	-0.59%	-3.48%
코스닥150	1,254.21	-1.82%	-9.99%	USD/CNH	7.23	+0.37%	+1.43%
S&P500	6,001.35	+0.1%	+25.82%	USD/JPY	153.72	+0.71%	+8.99%
NASDAQ	19,298.76	+0.06%	+28.56%	채권시장			
다우	44,293.13	+0.69%	+17.52%	가격	DTD(bp)	YTD(bp)	
VIX	14.97	+0.2%	+20.24%	국고채 3년	2.900	+1.8bp	-24.5bp
러셀2000	2,434.98	+1.47%	+20.12%	국고채 10년	3.035	-0.2bp	-14bp
필라. 반도체	5,156.39	-2.54%	+23.49%	미국 국채 2년	4.254	+0bp	+0.4bp
다우 운송	17,566.34	+1.22%	+10.49%	미국 국채 10년	4.304	+0bp	+42.5bp
상해종합	3,470.07	+0.51%	+16.64%	미국 국채 30년	4.470	+0bp	+44.1bp
항생 H	7,355.57	-1.42%	+27.51%	독일 국채 10년	2.327	-4bp	+30.3bp
인도 SENSEX	79,496.15	+0.01%	+10.04%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854.03	+1.07%	+7.36%	WTI	68.04	-3.32%	-3.21%
MSCI 전세계 지수	863.02	+0.05%	+18.71%	브렌트유	71.83	-2.76%	-6.76%
MSCI DM 지수	3,791.23	+0.1%	+19.63%	금	2,617.70	-2.86%	+21.18%
MSCI EM 지수	1,135.65	-0.43%	+10.93%	은	30.61	-2.66%	+27.1%
MSCI 한국 ETF	58.37	-1.4%	-10.93%	구리	422.85	-1.8%	+8.69%
디지털화폐				BDI	1,495.00	+3.03%	-28.61%
비트코인	88,014.53	+10.12%	+107.05%	옥수수	429.50	-0.35%	-14.7%
이더리움	3,327.48	+4.94%	+45.79%	밀	564.75	-1.35%	-15.58%
				대두	1,022.00	-0.8%	-18.42%
				커피	255.85	+1.09%	+34.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